

 <p>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p>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2. 10.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19. 12. 10. 화	총 1매 (별첨 0건)

민식이법 · 하준이법 통과에 대한 유가족 소감문

□ 하준이 엄마 고유미 님 소감

하준이법이 통과된것에대해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간에 너무 지쳐 이젠 그럴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준이법이 통과된 것은 하준이와 다른 부모들(민식이네, 태호네, 해인이네)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덕입니다.

국회에 고맙지 않습니다.

태호 엄마와 더불어 저 역시 초기 임산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들과 아이들 이름 만들어도 호흡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회가 한 것이 얼마인데 국회가 고맙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말한 죄로 우리는 정쟁과 모멸에 시달려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데, 국회가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지요.

민생법안 처리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통과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음이, 해인이, 태호, 유찬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준아, 민식아,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자!

친구들이 아직 저기에 있어.

거긴 맑고 깨끗한 너희들의 이름이 있을 곳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 민식이 엄마 박초희 님 소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이 사회에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밑거름이 되어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아이들 희생으로 빚진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늘의 별이 된 민식, 태호, 유찬, 하준, 한음아 사랑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주세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소감

지금까지 업신여겨진 어린이 인권, 우리가 자라온 과거와 다름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남아있습
니다.

국회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20대 국회의원 임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시회 속히 열어 어서 통과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2019년 12월 10일

하준이 엄마 고유미, 민식이 엄마 박초희
정치하는엄마들